

# 총대외 지불 부담(Total External Liabilities)

조홍래 ·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총대외 지불 부담(Total External Liabilities)은 한 국가의 정부, 금융 기관 및 기업이 대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일컫는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외국에 지고 있는 빚, 즉 외채(총외채)인 것이다. 한국 경제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한 이후 총외채의 규모는 지난 연말 기준 1,544억 달러, 2월말 현재 1,503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이때 총외채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총대외 지불 부담이다. 외채의 개념은 IMF, World Bank, BIS 등 국제 공적 금융 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어 사용되는데, IMF에 의해서 사용되는 기준이 총 대외 지불 부담이다.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과 OECD는 동일

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금융 기관과 해외 금융 기관간의 대출 관계 및 국내 기업이 해외 금융 기관에서 빌린 금액의 합을 외채로 산정한다. 여기에 수출입 금융은 제외된다(〈표 1〉에서 2+3, 1997년 6월말 현재 1,034억 달러). 세계은행(World Bank)의 외채 개념은 BIS 기준보다 광의이며 BIS 기준에 더하여 정부의 대외 채무 및 수출입 금융을 포함시킨다. 단지, 거주자원칙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국내 금융 기관의 역외 금융과 해외 점포 거래는 외채에 포함되지 않는다(〈표 1〉에서 1+2+3+6, 1997년말 현재 1,208억 달러). 총대외 지불 부담이 IMF 기준의 외채인데 근본적인 채무자 기준에 의해 외채 규모를 산정한다. 따라서 국내 금융 기관의 해외 지점 및 점포의 외채도 국내 외채

로 포함된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역외 금융은 외채에 포함되지 않는다(〈표 1〉에서 1+2+3+4+6, 1997년말 현재 1,544억 달러).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채라고 할 때 바로 총대외 지불 부담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의 역외 금융<sup>1)</sup>이 본사의 지급 보증에 의한 부분이 많고 대외 신인도나 채무 이행 능력 차원에서 실질적으로는 본사의 채무 부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외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표 1〉에서 1+2+3+4+5+6). 그럴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외채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약 2,000억 달러를 상회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외채 추이를 보면, IMF 구제금융 이후 장기 외채의 비중이 60% 이상에서 40%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IMF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구제금융으로 일단 만기 도래한 단기 외채의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뉴욕 외채 협상 이후 단기 외채의 중장기 전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 비중은 최근 30%대로 더욱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차입 주체별로 보면 외채 구성의 특징을 더욱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공공 부문의 급격한 증가는 IMF와 선진국들의 구제금융이 정부가 채무자가 되는 형식으로 지원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금융 기관의 외채가 1월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미루어 구제금융으로 마련된 외화를 금융 기관의 단기 외채 상환에 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은지점의 외채란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 은행이 채무자가 되어 해외 금융 기

〈표 1〉 산정 기준의 종류

차입 주체	자금이 국내로 들어옴	해외에서 운용됨
정부	1	-
금융 기관	2	4
기업	3	5
기업의 수출입 금융		6

1) 재경부는 1997년 12월말 현재 532억 달러로 산정하고 있음.

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을 의미한다. IMF의 외채 기준이 거주자 원칙에 의한 것이므로 이런 항목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 은행의 채무는 어디까지나 '외국(은행)의 채무'인 셈이며, 우리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다지 신경쓸 사항이 아니다. 민간 부문의 외채는 주로 기업의 외채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단기 외채는 상당 부분이 수출입 금융과 관련된 외채의 잔액이며 상환 부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난 연

말에 비하여 2월 현재의 잔액이 적은 것은 경제 위기로 인한 금융 중개 기능의 마비로 수출입 금융도 타격을 입었음을 보여 준다. 이렇게 외채의 구성을 살펴볼 때 우리가 향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외채는 공공 부문의 외채, 국내 금융 기관의 장기 외채, 국내 민간 부문의 장기 외채이다. 여기에 더하여 외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역외 금융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는 항목이다. **HR**

〈표 2〉 우리나라 최근 외채 추이

(단위: 억 달러)

		1996년말	1997년말	1998년 1월말	1998년 2월말	
기간별 구분	장기 외채	575	860	872	889	
	단기 외채	1,000	684	640	614	
차입 주체별 구분	공공 부문	24	181	211	230	
	국내 금융 기관	(장기)	383	463	449	442
		(단기)	652	289	268	270
	외은 지점	160	189	178	170	
	민간 부문	(장기)	136	176	176	180
		(단기)	220	246	230	211
	총외채 (총대외 지불 부담, IMF 기준)		1,575	1,544	1,512	1,503
	총외채 (World Bank 기준)		1,047	1,208	1,206	1,202